

학교안전지도사 도입방안

An Introduction plan of School-safety Instructor

정 지 덕* · 김 건 희** · 강 민 희***

Jung, Ji-Deok · Kim, Kun-Hee · Kang, Min-H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중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건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두각 되었고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가 기존의 다양한 제도들을 일원화 할 수 있어야 하며 교직원에게 한정하는 부분은 수정·보완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교내의 학교범죄방지와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시에도 관련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

keywords : 학교폭력, 학교안전,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학교안전지도사

1. 서 론

2014년 세월호 사건과 끊임없이 두각 되고 있는 학교 성범죄, 학교폭력, 왕따 등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은 안전사고와 범죄의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폭행, 강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과 학교안전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고 그로인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파생되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아동안전 지킴이집, 안전직원배치, 명예경찰소년단, 위킹스쿨버스 등이 학생 또는 외부인에 의한 폭력, 성범죄, 납치, 유괴 등과 교통안전, 순찰, 지도, 경찰·담당교사 인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중첩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노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대표적으로 시행되어 지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에 대한 사건사례와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지도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일원화 된 학교폭력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희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hapki@hanmail.net

** 학생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rhantls132@naver.com

*** 학생회원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olivepink@nate.com

2. 본론

2.1. 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란 순수 우리말로 과거에는 ‘School Police’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학교폭력예방안으로 부산 지방경찰청에서 2005년 4월 29일 배움터지킴이들의 역할이 시작되었고, 좋은 성과에 힘입어 2006년 6월 8일 시범운영지역을 확산하였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8000여명의 배움터지킴이가 활동하며 학교폭력예방에 관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며 발전해 왔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교원, 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및 관련전문가를 선발하여 학교장의 위촉해 운영하였으며, 이들은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 순회활동을 실시하고 담임교사와 연계한 상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였다(공배완, 2013).

이 제도의 법적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타)일부 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7항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이세환 등, 2013).

배움터지킴이 제도에 있어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울산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배움터지킴이에게 실형이 선고 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최근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교실 내에 방화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배두열 등(2014)은 배움터 지킴이의 문제점으로 교육제도의 부실, 전문자격제도의 부재, 배치인원 부족을 꼽고 있다.

2.2. 학교보안관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전 오세훈 시장이 2010년 시장후보 선거공약으로 “학교폭력을 없애고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한 서울로 만들기 위한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을 내세워 시장 재선임 후 2011년 3월부터 국·공립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해 2012년에 555개교, 1110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시행중인 학교보안관은 학교 안팎으로 폭력, 납치, 유괴, 협박, 감금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예방,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와 방과 후 교내 순찰·지도, 교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외부출입이나 차량을 관리, 위험물의 학내 반입 통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김은정, 2012).

학교보안관 관련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침입하여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건이 있었으며 다른 성북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들의 하굣길을 지도하던 중에 학교내부 화장실에서 대학생에게 여학생이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상훈(2011)은 학교보안관 제도에 있어 운영주체 및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실성과 서울시 학교보안관의 임무, 교육, 처우상의 불합리성, 경비업법에 의한 규율 면탈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선아(2013)는 학교보안관의 인력부족과 그로인한 사각지대형성, 여성 학교보안관의 도입,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보안관 채용,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시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학교 안전지도사에 대한 논의

학교 안전지도사란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안전 제도들의 가지고 있

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새롭게 논의 중인 제도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2015)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안전지도사(교직원)란 학교(학생)안전과 관련된 교내 외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교 안전 계획의 수립, 학교 안전 관련사고 사전예방과 사전예방 교육, 초동대처, 전문 기관과 연계 및 사후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고, 학교 안전지도사의 직무에 관해 ‘학교와 학생이 관련된 교내외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학교 안전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처와 조치를 하여 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보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강민완 등(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보안관 제도의 필요성 분석결과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존에 경찰이나 전문 업체에만 의존했던 학교안전관리 및 순찰 관리 등을 ‘학교보안관’이라는 학교 안전전문인으로 배치함으로써 학교보안관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학교보안관의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과 학교에 안전전문인이 배치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인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제도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을 위해 전문인이 배치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이 교직원인 안전지도사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 보다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결론

우리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금품갈취, 단순폭행, 및 집단폭행, 왕따, 성범죄 등 다양한 학교안전문제들을 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끼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주변 스킨존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배두열 등,2014).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일원화 된 안전지도사의 도입을 위해 기존 제도적 장치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교육제도의 부실, 전문자격제도의 부재, 배치인원 부족을 꼽고 있고 그 외 사건사례에서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됨으로써 배움터지킴이의 직접적인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외부인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해 범죄가 발생하였다.

(2) 학교보안관에 관한 선행연구에선 운영주체 및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재산의 부실성과 서울시 학교보안관의 임무, 교육, 처우상의 불합리성, 경비업법에 의한 규율 면탈 등의 문제점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형성, 여성 학교보안관의 도입,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보안관 채용,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 시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다. 최근 사건사례로는 학교보안관이 다른 업무에 신경 쓰는 사이 학생들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제도의 문제점은 배움터지킴이 또는 학교보안관이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선행연구들에서 끊임없이 교육적 측면, 배치인원 부족, 전문성 향상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때문에 학교 안전지도사라는 자격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교직원이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발급받아 학교 안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견해는 학교 안전지도사 제도에 적극 동감하는 바이지만,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집, 안전직원배치, 명예경찰소년단, 워킹스쿨버스 등 학교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제도들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학교 안전지도사라는 제도로 일원

화하고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에 관련해 교직원에게 한정하지 않고 보다 학교 폭력 및 학교 안전에 전문적인 인원을 배치 할 수 있게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안전지도사는 교내의 학교 범죄 및 안전 외에도 교외 활동(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시 관련 부처와 상호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뤄져야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사)한국재난정보학회의 경찰, 경호경비 분야에 제출하는 논문이며 이번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2015학년도 학술발표회에 대해 알려주시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용인대학교 김태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강민완, 김은정(2011),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Vol. 11 No. 12
- 공배완(2013), “학교안전지킴이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전문성과 제약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3권 제2호
- 김선아(2013), “학교보안관의 업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 4호
- 김은정(2012), “학교보안관 서비스의 중요도·성취도와 만족도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배두열, 정귀영(2014),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1호
- 이상훈(2011),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9호,
- 이세환, 김용학(2013), “학교안전 지도법”, 진영사